

ISSN 1599-516x <http://www.hrdkorea.or.kr>

산업인력

vol. 115 _ 2005 Summer





기획특집 ①

지식정보화사회

■ 설동훈

新호모 파베르

지식기반사회의 인적 자원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여러 나라, 미국·러시아·일본 등으로 확산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과 중국 등으로도 확산되었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한꺼번에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되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었다. 공업화 시대의 인간상은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 묘사되었다. '작업하는 인간' 내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공작솜씨를 발휘하여 세상을 바꾸었다. 실재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는 인간의 미덕이 중시되었다. 호모 파베르는 한국의 공업화를 달성한 주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제조업이 노동절약형으로 바뀌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생산 자동화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 수준의 상승으로 저임금 업종의 생산 공정을 해외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2004년까지 95만 명이나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에 500만 명 이상 늘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금융·보험·물류, 통신서비스·소프트웨어,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요즘 한국사회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취직은 어렵고 중도 퇴직이 늘고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저성장과 고실업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일자리 창출' 구호를 외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재조정의 핵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노동은 공업화 시대의 노동과 그 내용·형태가 전혀 다르다. 한 사람의 생산력은 그의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창의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이 창의적 지식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쌓느냐가 관건이다. 인터넷이 지식 창고로 성장함에 따라 암기 위주의 지식은 무의미해졌고, 인간의 사고와 결합된 독창적 지식(knowledge)만이 가치를 갖게 되었다.

생산 영역에 적용된 지식은 기술과 기능으로 분류된다. 기술(technology)은 원료를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작업공정에 이용되는 기계·도구·기법 등의 지식을 의미한다. 기술은 기계와 도구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사람이 보유한 지식의 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사람이 보유한 기술은 그 쓰임새의 넓고 좁음에 따라 '일반적 기술'과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되는 기술'로 구분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호모 파베르'(neo-Homo faber)가 될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등을 통한 산업인력의 활용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할 수 있다. 전자는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특정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knowhow)의 습득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기능(skills)은 '인간 행동의 학습된 능력'을 말하고, 주로 신체적 동작과 관련된 능력을 뜻한다. 기능은 숙련의 동의어이기도 하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호모 파베르'(neo-Homo faber)가 될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등을 통한 산업인력의 활용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적 자원을 배양하는 것을 평생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호모 파베르는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해서 전력하는 인간형이다. 정보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창의력이 가미된 '기능'과 '기술'은 가치의 원천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들은 좋은 보수·근무환경이 주어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익혀서 해외로 취업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종의 산업공동화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 결과 수십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들 역시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호모 파베르의 자질을 배양할 것이다. 과거 공업화 시대에서는 노동의 양이 질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했으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즉 고도의 기술과 기능

을 가진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호모 파베르는 창의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숙련된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